



필리핀 락아팀의 11월 이야기



우	리	같	이	행	복	을	꿈	꾸	자	♡
---	---	---	---	---	---	---	---	---	---	---

루	피	로	늘	러	오	세	요
---	---	---	---	---	---	---	---





1. **우리들의 11월 활동보고**
2. **우리들의 피드백**
3. **개인 에세이**
4. **락아네 사진전**

01

# 락아의 11월 활동



# 11月

한눈에 정리하는 락아 팀의 한 달!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부역 프로젝트 ing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프로젝트 회의 및 중간 격려 보고 내용 정리					
25	26	27	28	29	30	
중간 보고물 제작		←	중간 격려			

락아의 10월 보고서 中 한 페이지! 다들 기억 나시죠~?

루피에서 여섯. Daycare Center 부업 공사하기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나고 10월의 마지막 날 공사의 첫 부분인 기존 부엌 철거가 시작 되었다. 철거를 맡아 주신 Barangay 관계자분들은 건축의 숙련공 이셨다! 약 1시간 만에 기존 부엌이 모두 철거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동안 임시로 이용될 화덕을 만들어 주셨는데, 별도의 디자인이나 도안 없이 몇 마디 나누시더니 임시 화덕을 짓고 계셨다. 이로써 부업 공사의 첫 발걸음이 시작되었다.

오는 11월에는 본격적으로 건축이 시작 될 것이다.

그 부업이야기, 더 나눠 볼까요?

# 10월과 11월, 부역을 짓는 과정!

## 부역이 만들어 지는 순서



1 락아 & 바랑가이 오피셜들  
공사 합의 과정 거치기



2 다 함께 자재 구매



3 정부의 도움 받기  
(노동력, 자재)



4 공사 직전 계획 변경



5 기존의 주방 철거



6 임시 화덕 공사



7 인력부족으로 난항



8 공사 시작 ~ 현재 진행 중

부엌 문제가 이렇게 일사천리로 간단하였을까요?  
지금부터 부엌 공사의 A to Z를 알아보겠습니다.

# 부역을 완공하기까지...

※ 부역 공사의 진실과 그 과정...



## 부역 첫 방문

어떤 것을 바꿀 수 있을까  
여러 번 관찰하고 고민했던 우리들.



## 바랑가이 측이 만든 설계도

캡틴이 직접 그리셨다! 우리는 이런 도안으로도  
건물이 지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 바랑가이와 우리의 의견 수렴

기존에 계획은 리모델링이었지만 가격을 듣고  
의견을 모은 후 재 건축으로 방향 변경!



## 공사 일정 합의

언제 공사를 시작할지  
자재들을 살지 날짜를 정했다!!



## 자재 가격 점검

필요한 자재들의 가격을 체크하고  
구매할 수량을 정했다.



## 부역 도구 자재 가격 체크

부역 건축 이외에도 필요 할 수 있는,  
어머님들에게 필요한 자재들의 가격 체크!

# 부역을 완공하기까지...



## 갑작스러운 산페르난도 시장 등장!

생각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했고  
 예상보다 인건비가 비싸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꾸야 존의 도움으로 빠르게 일이 진행되었다.  
 (Tip : 선거철이 다가오는 기간 활용)



## 설계도와 자재, 전문인력 대변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계도로는  
 건물이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인지했다.  
 산페르난도 측의 도움으로 설계도를 새로 작성했고  
 충분한 인력을 제공 해주겠다는 약속을 얻었다.



## 부역 철거 및 임시화덕 공사

데이케어 센터가 쉬는 날을 활용하여  
 빠르게 부역을 철거하였다.  
 (이 때만 해도 웃을 수 있었던 우리...)



## 갑작스러운 꾸야 레이의 등장!

기존에 만났던 사람과는 다른 전문가가  
 우리를 만나러 왔고  
 당연히 그를 믿고 일을 진행했다.



## 지붕모양 변경 제안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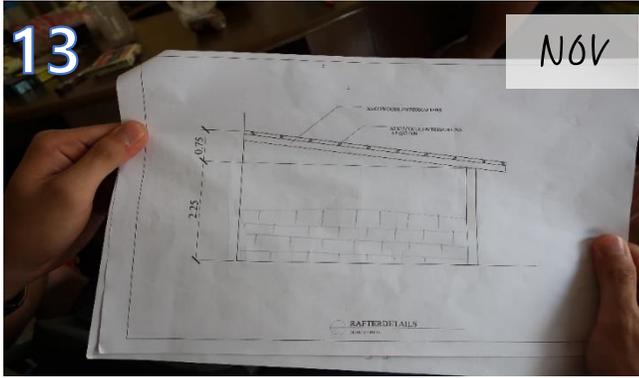
그는 공사기간을 줄이고 예산을 적게 쓸 수  
 있다며 다른 모양의 지붕을 추천했다.



## / 모양으로 최종 결정

쉬는 날에도 일을 하시며 설계도를  
 그려오신 꾸야 레이! 때마침 오피셜들의 회의가  
 있는 날 오셔서 지붕 모양을 최종 변경하였다.  
 (이 과정에서 꾸야 존의 의견을 담지 못했다.)

# 부역을 완공하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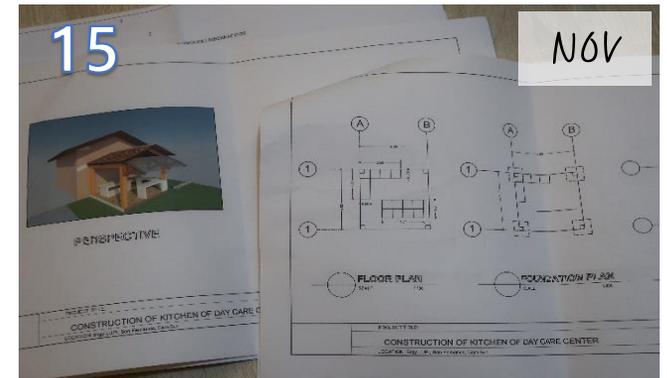
지붕모양!! ▶ / VS ㄱ

꾸야 존과 우리가 컨택 하고 있는 전문 인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고, 3D 시안으로 두 지붕의 디자인을 보기로 결정했다.



설계도 미확정으로 최소수량의 자재 구매

미리 오피셜들과 자재를 구매하기로 예정된 날짜 바로 전 날 13번과 같은 일을 겪어, 약속을 취소할 수 없었다. 따라서 최소수량의 자재만 구매!



결국 ㄱ 지붕의 승리

바랑가이 муниципалу에 처음으로 모두가 모여 모양을 결정. 락아 & 꾸야 레이 & 바랑가이 오피셜 & 꾸야 존 & 꾸야 존과 컨택 하던 전문인력 (의사소통 문제에 있어 많은 체력을 소모한 락아...)



비자 연장, 예산 대변수 발생

기존의 비자연장 비용보다 두 배 이상 비싼 비용을 치뤄야 했다. 예상치도 못한 예산문제에 봉착. 부역이 철거 된지 꽤 되었는데 또 딜레이라니!



뭐라도 해보자! 한국연락도...

자재나 새로운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진 않을까 муниципалу에 방문. 한국 Y와 락아의 썸씽이 발생...



가불 확정 후 공사 시작

예산 문제로 공사가 연장될 뻔한 순간, 캡틴의 도움으로 루피 내에 있는 자재가게에서 가불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인력 교체 이후 현재 공사진행 중

공사를 총괄해주는 전문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총 진행자가 바뀌는 일이 있었고, 공사는 천천히 진행되어 가고 있다.



오래 되고 낡았던 부엌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허물었어요~



차곡차곡 하나하나



쌓고



올리고



발라 나가요



그렇게 완성 되어가는 우리의 부엌입니다.

## #2 지역프로젝트회의 & 중간격려 준비

중간보고 PPT와 영상을 준비해주세요.  
참, 필리핀 팀은 일주일 남았지렁 - 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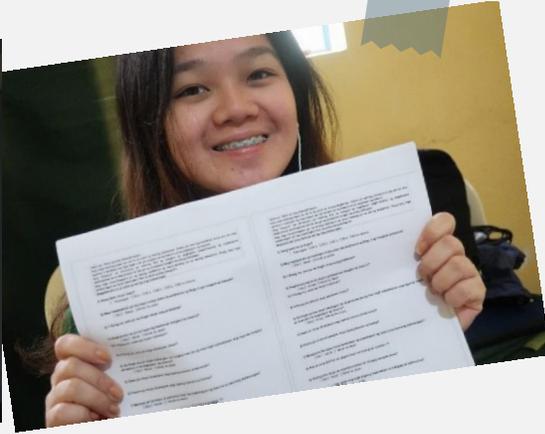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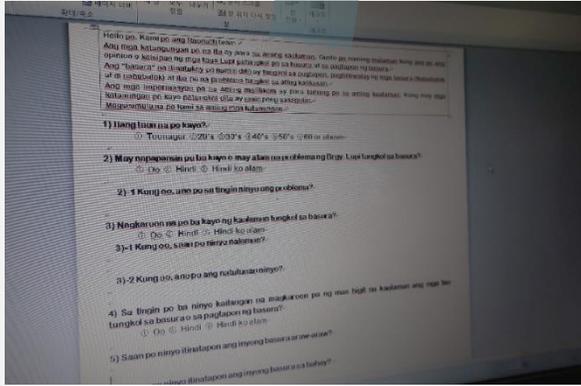
발등에 불 떨어진 락아...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평화롭지 않은 일주일을 보내게 된다.

지역 프로젝트 회의와 더불어  
중간보고회 준비도 겸하는 스트롱멘탈 락아



중간보고회 때 담을 지난 3개월 간의 여정과  
그간 느낀 것들을 토해내는 준제공  
(화난 거 아님 감정이 벅찬 거임)

### #3 지역프로젝트를 향한 첫걸음 - 설문조사



어디 타는 냄새 안 나요?  
쓰레기가 타고 있잖아요.

쓰레기통이 비워지지 않아  
여름 바람에 흩날리는 쓰레기들

쓰레기는 어디에 버리면 되니?  
바닥에요. 참 설조잉

#### 그리하여 시작된 Basura(쓰레기) 프로젝트

프로젝트에 앞서 루피 사람들의 쓰레기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미카의 따갈로그어 번역 도움을 받아  
루피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zone별, 연령대별로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 안경이 콧구멍까지 내려온 것도 모르는 그녀



설문 후 드릴 1페소(20원) 과자들도 듬뿍 준비한 락아  
(페퍼의 최애 과자... 설문조사 내내 시험에 든 페퍼)

준비를 마친 락아.  
설문조사를 시작해볼까요?

### #3 지역프로젝트를 향한 첫 걸음 -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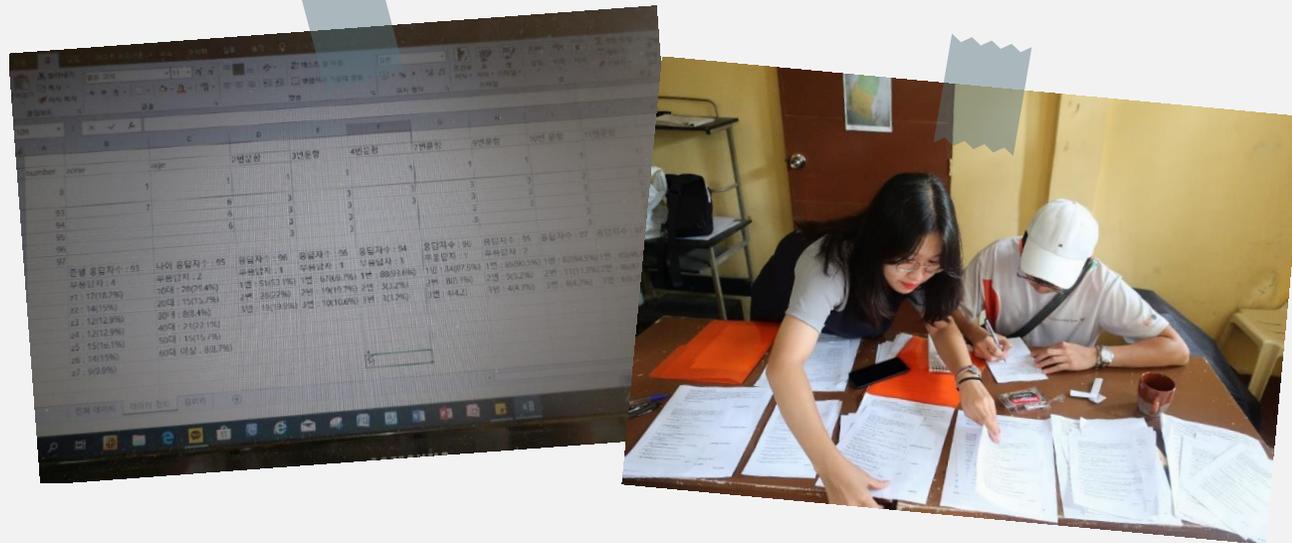
데이케어센터 학부모님들께도 드리고~



걸어가면서까지 설문해주는 소녀들



루피 청년들의 생각도 들어보자



설문 후 각자가 느낀 점,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 략아. 함께 나눠볼까요?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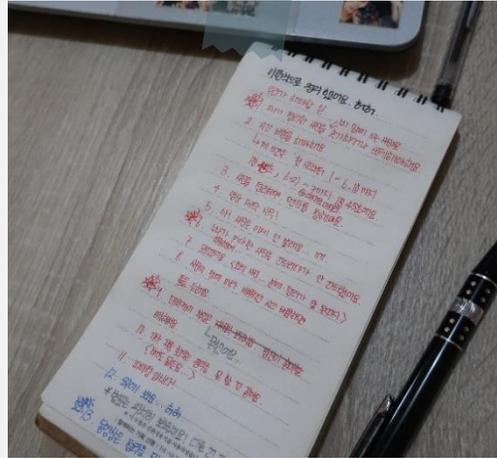
여기선 말 안 해 줄 거지롱!  
12월 보고서를 기대해 주라주!

#### #4 한 여름 밤의 꿈, 중간격려

회의 내용들을 토대로 본격적인 중간 격려 PPT와 영상 작업에 돌입한 락아. PPT 용사들(지미, 보노, 수)과 영상 용사들(페퍼, 준준)로 나누어 중간 격려에 단단히 대비한다.



박수 받아 마땅하다, 용사들이여!



뇌가 활발한 시간이 정반대인 용사들의 새벽 4시 바톤터치



완성된 보고물들을 함께 보면서 어떤 식으로 발표를 진행하면 좋을지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간의 힘듦에 대해 토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언어의 표현방식에 좀 더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왔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알짝쿵 있었는데 말하기 부끄러움)

## #4 한 여름 밤의 꿈, 중간격려

마음은 반가워서 요동을 치는데 예상과 조금 다르게 흘렀던 어색한 공기에 서로 암묵적인 당황을 했지만 금새 평화:)를 되찾은 우리들!

열심히 준비한 중간보고회도, 간사님들의 루피 방문도, 틈틈이 진행된 담소(면담X)도, 도란도란 마주보고 이야기 나누던 식사시간도 흘러흘러 행복했던 5일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롤러코스터를 탔나...)



### # 필리핀 락아팀의 중간 보고회

놓치고 있던 부분과 막연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내용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들어 주심에, 진심 어린 조언에 감사드려요!



### # 루피 홈스테이 가정 방문

아띠들이 살고 있는 루피의 각 가정에 방문해 인사도 드리고, 예쁜 부채도 선물 드릴 수 있었던 시간!

이 든든함... 뭐지...



### # 데이케어센터 부엌 완공식 아닌 완공식

아직 완공 전이지만 데이케어센터의 부엌이 변화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축하하는 자리도 있었어요!

너는 그르کم... 눈물을... 흘린다...★  
아직 감동과 감사의 파도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5인...

## #4 꾸야 큐홍, 히쉬의 일주일 in NAGA



간: 맛있는데 조금 짜지 않았어?  
락: 네? 하나도 안 짠데..?  
간: (당황)(신기)(아이들)(적응잘했네)(건강...)



간사님들과 함께 하는 식사 준비 남남



꾸야 큐홍의 한 시간 설거지 (그..그만..)



히쉬는 내가 지킨다! - 라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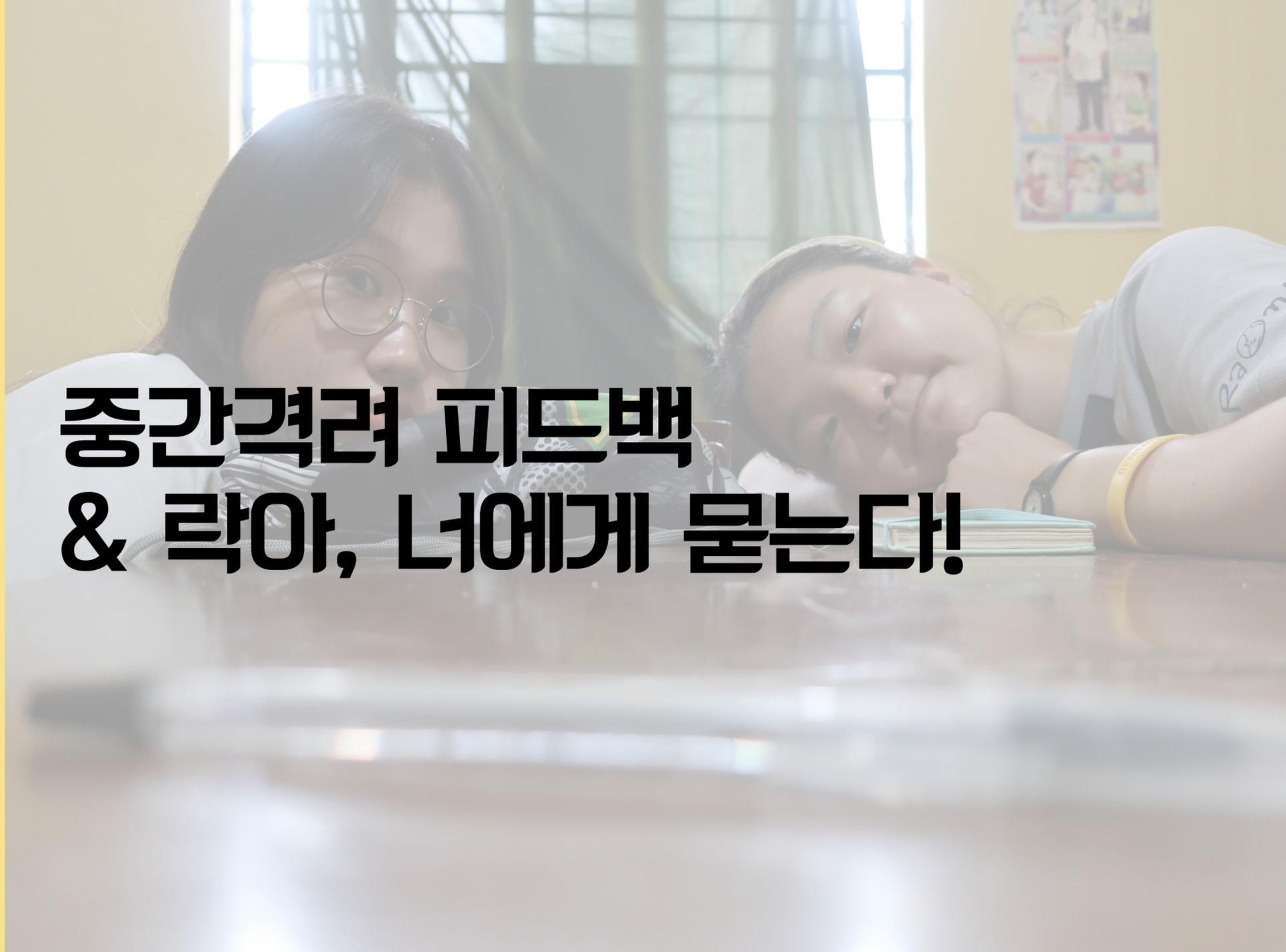
큐홍은 내가 지킨다! - 오뚝이



우리의 사랑을 담아 캄보디아로, 한국으로 그대들을 보냅니다~

02

**중간격려 피드백  
& 락아, 너에게 묻는다!**



## #1 중간격려에서 받은 피드백

### 중간보고회 중인 락아 팀

앞선 11월 활동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락아 팀은 라온아띠 18기 팀들 중 가장 처음 순서로 중간격려를 받았답니다! 중간보고회를 하는 시간을 가진 후 Kuya Pabs, Kuya John, 규홍 간사님, 형석 간사님의 소감과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야기 이번 피드백 시간에 함께 나눠 볼까 해요. 이 중간격려 시간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과 서로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 우리는 영웅이 아니다.

- 지역사회의 공동체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가 떠나도 계속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YMCA 청년들과의 활동이 부족하다.
- 우리는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 온 것이다. 코리아노가 아니라 꾸야, 아떼라고 불리는 것이 이룬 것일 수 있다.
- 문제의 해결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마을 사람이다. 마을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하라.

## 배움이 부족하다.

- 팀워크가 깨지지 않아 서로가 서로에게 조언할 수 있는 사이가 유지 되고 있는 것에 감사하다. 우리가 생각하고 공유하고 토론하는 것은 잘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노력하는 것이 부족한 것 같다. 한국에서의 방법에 국한되지 말고 다양한 나라의 사례들을 접해보라!
- 해결책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며 찾기를 바란다. 해결책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 건강한 지구시민으로서의 성장과 지역 공동체의 개발 이 두 가지가 라온아띠의 큰 목표이다. 이 과정에서 배움은 꼭 필요하다.

## 돌로 일정을 고민해 보라.

- 중간보고회 PPT에 결과가 아닌 과정이 녹아 있어서 결과만 보였으면 이해되지 않았을 부분이 잘 설명이 된 것 같다.
- 루피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루피에 남아 남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해보는 것은 어떨겠느냐?
- 그런 의미에서 1월에 2주간의 짧은 일정한 돌로를 꼭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안가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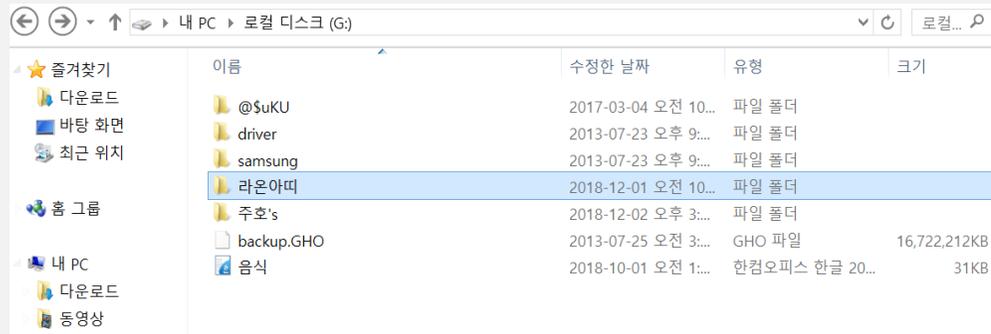
- 
- 부역을 짓는 과정을 문서화 작업을 해보면 어떨겠느냐 이런 일을 하게 될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 다음 발표는 모두가 다 참여했으면 좋겠다.
  - 라온아띠나 루피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듣고 싶다.
  - 라온아띠를 하며 어떤 변화와 성장을 했는지 고민하고 알려달라.



말씀 받잡아 저희 략아 더 잘 살아보겠습니다~!

# 락아가 서로에게 질문 하는 이유가 궁금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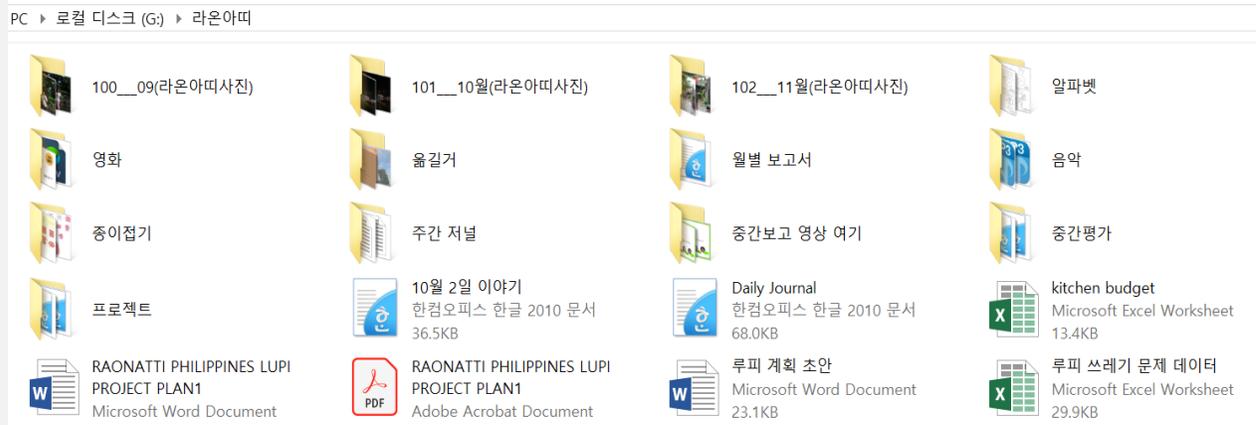
루피 생활을 하며, 또 홈스테이 생활을 하며 나가에서 함께 살던 때와는 다르게 개개인이 조금은 다른 일상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눔이나 회의를 하며 우리가 함께 하며 느끼는 부분들을 조율해나가고 맞춰나가고 있어요~ 또 조금씩 다른 하루들을 공유 하기도 하구요! 하지만 조금씩 다른 하루하루 속에서 개개인이 느끼는 어려움과 행복한 감정들이 약간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모두가 동의하는 피드백을 써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락아 팀은 서로가 서로에게 질문 하고 각자의 다른 대답들을 들어보는 피드백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① 락아의 외장하드의 용량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

이름	수정한 날짜	유형
09월 월별 보고서	2018-11-24 오후 11...	파일 폴더
10월 월별 보고서	2018-12-04 오후 8...	파일 폴더
11월 월별 보고서	2018-12-07 오전 10...	파일 폴더
12월 월별 보고서	2018-12-03 오전 10...	파일 폴더
우리도 고르자	2018-11-03 오후 7...	파일 폴더

② 요렇게 폴더를 만들어두고~



② 가끔은 뿌듯해지는 정리정돈.

이름	수정한 날짜	유형	크기
(SUE) 11월 너에게 묻는다	2018-12-03 오전 3...	Microsoft Word Do...	14KB
11월 보고서 너에게 묻는다! 질문모음	2018-11-29 오후 11...	Microsoft Word Do...	12KB
11월 보고서 회의	2018-11-27 오후 4...	한컴오피스 한글 20...	10KB
11월 보노보노 보고서인데요	2018-12-03 오후 9...	한컴오피스 한글 20...	26,568KB
11월 월별 보고서 남정	2018-12-05 오후 11...	한컴오피스 한글 20...	27,425KB
11월 월별 보고서 준준	2018-12-05 오후 8...	한컴오피스 한글 20...	29,957KB
11월 월별보고서 작업중 2	2018-12-07 오전 9...	Microsoft PowerPoi...	51,913KB
11월 월별보고서 작업중1	2018-12-05 오후 12...	Microsoft PowerPoi...	10,075KB
11월 후추의 에세이_사진_피드백	2018-11-29 오전 1...	한컴오피스 한글 20...	21,425KB
표지 사진	2018-12-05 오후 4...	Microsoft PowerPoi...	6,796KB

④ 정해진 날짜까지 넣어주세요~~

# 루피 홈스테이는 안녕하십니까?

10월 마지막 장이 생각나네. 나는 음 안녕했을까? 11월이라는 시간 속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생각해보니 진부한 말이지만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안녕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 남은 시간들 동안 루피의 작은 한 부분들로 또 다 함께 안녕히 잘 보내봅시다.

주은

별 탈 없이 잘 지냈냐고 묻는다면 탈도 많고 말도 많았지요..? 참 험난하고도 신선한 생활을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보노의 말처럼 정말 곁에서 함께 해준 사람들 덕분이예요.

이 자리를 빌어 마라밍 고맙다는 인사를 :) (수상소감 아님 말로 하기 부끄러운 거임)

아 참, 이전 '홈스테이' 대신 간사님께서 말씀해주신 '필드 익스포져' 라는 단어를 함께 공부해보기로 해요!

여정

루피에서의 생활은 안녕한 날이 더 많다. 다만, 몇 가지 일들이 겹치면서 루피에서의 생활이 그리 안녕하지 않는 순간들이 종종 있었다.

하지만, 루피에서의 '나'는 다른 곳에서의 삶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것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편안함을 제공해주고 있기에 나는 루피에서의 삶은 안녕하다고 말할 수 있다.

회정

안녕: (安寧) 【명사】【~하다형용사】

【~해부사】: 아무 탈 없이 편안함.

탈: (頃) 【명사】

- ① 변고나 사고.
- ② 몸에 생긴 병.
- ③ 트집이나 핑계.
- ④ 결함이나 허물.

나는 특별한 변고나 사고, 몸에 생긴 병, 트집이나 핑계 없이, 그리고 결함이나 허물은 배워가고 채워가며 편안하게 루피에서 잘 지내는 것 같다.

남정

6시에 우는 닭에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어 나는 것도, 똥꼬발랄한 아이들 덕분에 옷이 늘어나는 것도, 별과 달 아래에서 하는 찬물 샤워도 모두 안녕해졌다. 살아온 방식과 삶이 달라 불편했던 것들은 모두 편안해 졌지만 예측 할 수 없는 일이나 관계에서 오는 갑작스러움? 상처? 들에는 활동 종료일 그 끝까지 안녕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잔잔한 하루하루로 남은 날들이 흘러갔으면 싶다.

성아

# 나에게 루피 홈스테이 가족이란?

나에게 홈스테이 가족이란 '제2의 가족'이다. 한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것을 함께 하기.

그리고 내가 필리핀에서 제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와 사람들이기에, 나는 '제2의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회정

편안하지만 불편하고 가볍지만 무겁고 쉬운 듯 어려운 애증 관계.

생각해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 집으로 나를 보낸 신의 뜻은 무엇일까?

성아

처음에는 온전히 가족이고 싶은 마음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나의 욕심이란 것을 깨달았다. 지금의 나는 '손님이자, 동시에 가족이기도 하다'로 생각이 바뀌었다. 그리고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손님'의 비중보다는 '가족'의 비중이 커지는 중이다. 홈스테이 가족들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도 우리 가족에게 점점 소중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을 느낀다. 나에게 소중하다는 말은 없을 때 아프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번 달에 홈스테이가 끝나는데 나는 우리 가족과 어떻게 헤어질까. 많이 아플 것 같다.

남정

루피에 사는 것과 살지 않는 것 모두를 망설이게 하는 오묘한 매력의 존재

여정

또 다른 세계.

주은

# 루피 생활 동안 팀 내에서의 의사소통은 잘 이루어졌나요? 더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나는 홈스테이를 하면서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확실히 느끼게 된 것 같아. 각자 다른 집에 살고, 겪었던 것도 다 다르니까 의사소통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좀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 질문을 생각할 때만 해도 소통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실제적인 시간과 장소를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것을 어떻게든 빨리 공유하고자 하는 조급함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좀 기다려 보고 싶어. 다들 공유하고 싶은 것들은 꼭 공유를 하니까.

주은

홈스테이를 시작하면서 서로 간의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서로의 이야기와 감정들을 잘 공유해나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편안함이 점점 깊어졌다고도 느낀 한 달이었다.

질문이 어려워서 대답을 쓰긴 썼는데 동문서답이라면 미안.ㅎ

남정

개인적으로 버거웠던 11월을 되돌아보면,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이 두려워서, 나에게 중요한 일이 다른 이에겐 별 거 아닌 일이란 걸 깨닫는 것에 지레 겁 먹어서 혼자 끙끙 앓았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팀 전체가 하는 나눔 시간에 마음을 드러내는 게 부담이 돼 감추고 있으면 또 어떻게 알고 한 명씩 어루만져주는 우리 팀의 의사소통 방식이 참 좋습니다. 나누고 싶어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야기하고 싶어질 때 짬 툯툯 관심을 보여주는 락아. 앞으로도 이대로만 갈아라 :)

하지만 나눔은 잊지 말조아~

여정

모르겠다. '모르겠다.'라고 시작한 이유는 의사소통이 잘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를 기다렸던 것은 누군가에게는 득이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잘 해결해나가고 있고, 부족하다 싶을 때는 누군가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에 지금의 우리의 방식이 난 좋다.

희정

11월 한 달 동안 회의는 참 많이 했는데... 우리가 홈스테이 집에서 떨어져 생활하면서 각자 어떤 것을 느끼고 고민하는지 공유하는 시간은 갖지 못했던 것 같아 아쉽다.

5시, 회의가 끝나면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농구장 무대 위라는 것도 나눔을 많이 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 많은 모기들이 모이고 훨씬 더 많은 아가들이 모여드는... 그 곳... 나눔 하는 시간이나 공간을 바꿔 보는 건 어떨까 싶다! 히히 ☺

성아

# 11월에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12월엔 어떻게 보충할 수 있을까요?

음...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을 찾자면, 주어지는 과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하지 못한 점인 것 같다. 초기에 부역 공사를 시작할 때는 함께 참여하였지만 11월 말로 접어들면서 프로젝트 기획서, 중간평가 PPT와 보고서, 11월 보고서 등 당장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빠져 나와야 했다. 이 아쉬운 점을 어떻게 보충해야 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나름대로 매 순간 순간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변명을 해본다.

지미

부족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식욕을 조절하지 못하고 많이 먹는 것이 힘들다... 변비와 체중 증가는 어쩌면 당연한 일 일지도 모르겠다... 음 귀엽지만 심각한 이 문제는 소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12월에는 적당히 먹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 같다.

성아

나에게 부족했던 것은 고민의 정도다. 고민을 많이 그리고 내 수준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주제로 하다 보니 이것이 나에게 오히려 해를 끼친 것 같다. 이를 규간님과 형석 간사님과 나눈 '담소담소'를 바탕으로 남은 2개월 간 그리고 내가 살아갈 남은 여정동안 잘 고민하고 생각해보면 될 것 같다.

결국엔, 계속된 고민이긴 하지만, 마음은 편안하다!

회정

마땅한 시간과 장소, 체력이 부족해 이루어지지 않은 나눔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결국엔 나의 '솔직함'이 부족한 거였단 걸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3번 질문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의 설명은 패스! 하겠습니다.

또 하나 부족했던 것, 바로 '용기'인 것 같아요. 매 순간이 선택인 우리에게 그 선택을 할 용기가 항상 수반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에게 먼저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물어 볼 용기, 회의하러 가기 전 데이케어센터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먼저 인사 건넬 수 있는 용기, 좋으면 좋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마음을 드러낼 용기, 살아볼 수 있는 용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 ㅎㅎㅎ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 근데 그 사건들 속에 좀 파묻혀 있었던 것 같아. 정리되지 못한 채 그냥 엄청 힘들긴 힘든데 정확히 뭐 땀에 힘든지는 모르겠는? 그 상태를 스스로 알았지만 9,10월과 다르게 그것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피했던 것 같아. 지나고 보니까 그게 좀 아쉽네. 12월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젠 좀 그런 시간들을 잘 정리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어.

아, 이번 달에 또 새벽 조깅도 시작할거니까(라고 일단 해본다) 그 때를 한번 잘 이용해볼까?

보노

# 지난 3개월 동안 개인시간이 당신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개인시간.... 나 같은 집순이들은 개인시간. 아주 중요한데요. 나는 그 시간들이 내 안에 쌓이는 생각과 감정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 일기를 쓰거나 책을 읽거나, 바실리카를 돌면서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게 오히려 내가 주위 사람들과 같이 잘 살수 있도록 도와준 거 같아서 정말 좋았어.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그 시간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남자친구와의 데이트로 채워졌던 것 같은데, 그것이 싫다는 것이 아니라(이건 진심! 정말 진심!)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정말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해서 나에게 빠져들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 한국 돌아가서도 이런 시간을 좀 잘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보노

저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에요. 왜 내가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날까 생각을 해 본 결과, 아침 시간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생활의 에너지로 다가온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하는 건 영화보기, 컬러링 북, 노래 듣기 이 정도인데 이 사소한 것들이 저에게 힘든 하루 끝에서 내일을 기대하게 할 때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저를 어루만지는 감사한 시간이지만, 때론 이겨내고 싶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저 스스로도 '난 개인시간이 꼭 필요해!' 라고 고정을 시켜버려서 괜히 개인시간이 없는 날엔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 같은? 그냥 저를 스스로가 너무 가두는 건 아닌가 싶은 기분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개인시간 없이도 잘 살아낼 수 있는 삶을 루피 홈스테이동안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도전이 제겐 엄청난 의미를 가져다 줄 거라 확신해요.

여정

3개월 동안 개인 시간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휴식'이다. 혼자 노래 들으면서 걷고, 와이파이를 쓰면서 가족, 친구들과 연락을 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면서 일기를 쓰고, 책도 읽고... 이렇기에 나에게 개인 시간은 '휴식'이다.

회정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먹을지 등의 의견을 조율하거나 배려할 필요 없이 오로지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

어떤 의미가 있다기 보다 해보고 싶었던 것이나 못해 본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며 에너지를 얻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성아

푹 빠져 있다가 잠시 한 발짝 물러난 상태로 라온아띠 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구체적인 나무들보다는 큰 숲을 보려 노력하는 시간. 소중한 사람들과 연락하는 시간. 나를 위한 휴식을 주는 시간. 동시에 반성하는 시간.

남정

03

# 락아의 개인 에세이



## 주은이의 이야기



벌써 3번째 에세이를 쓰고 있다니. 시간이 정말 빠르다. 11월은 다른 달 보다 특히 더 그랬다. 유난히 쓰기 어려웠던 10월 보고서와 달리 11월 보고서는 좀 쉽게 써지는 것 같다.

11월은 나에게 평가라는 말로 다가왔다. 중간격려라고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모양들을 본 한국 Y 와 필리핀 Y 는 어떤 말을 해주실까. 설레기 보다는 걱정되는 마음이었다. 걱정되는 마음 가운데, 나는 좀 이상함을 느꼈다. 분명 이렇게 남들 앞에 서는 순간들이 힘들어 라온아띠를 선택한 나였는데, 여기서 조차 이려고 있다니. 그래서 처음엔 그냥 좀 의연해지려고 노력했다. 좋은 포장지를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이 시간들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려고 했다. 하지만 잘 안됐다. 중간 격려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하면서 조급함이 밀려왔다. 그렇게 그 시간들 속에 힘들어 하다가 루피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여느 때 처럼 그냥 평범한 저녁이었다. 함께 뉴스를 보면서 저녁을 먹다가 영토분쟁과 관련된 이슈가 나왔다. 필리핀 엄마가 말했다. “God gives us all. You know pahiram? we just pahiram!” pahiram 은 빌린다는 말이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다. 내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 중에 정말 내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심지어 나의 생명조차 내 의지로 갖게 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다. 큰 욕심 없이 하루하루를 흘러가듯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의 모습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나에게 작은 위로를 건네는 것 같았다. 분명 나는 빌려 쓰는 삶을 살지 않았기에 이 말이 나의 것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하지만 외부의 어떤 것에 압도될 때 마다 나는 이 말을 기억할 수 있다.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다.

## 주은이의 이야기



그리고 11월 한 달 동안 “민폐” 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했다. “어떻게 인간이 타인에게 폐를 안 끼치고 살겠어. 다 서로서로 폐 끼치며 사는 거지.” 라고 말했던 누군가의 말이 계속 생각나는 시간들이었다. 위에서 소개 했던 것처럼 나에게 큰 깨달음을 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이, 그들에게 민폐가 아닐까, 나 때문에 그들이 불편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다. 가족들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느끼지 못했던 시간들이었다. 내 식사와 잠자리를 늘 걱정하시고, 설거지를 하는 것 보다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 해주셨던 그 배려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을 지도 모른다. 하루아침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과, 심지어 국적도 다른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 가족들에게는 분명 불편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중간 격려가 끝나고 나는 엄마에게 물었다. 왜 나와 함께 살게 된 것인지, 불편한 적은 없었는지. 처음에는 불편하셨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찮아졌다고 하셨다. 이제는 우리 가족의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믿기로 했다. 내 안에서 머무는 생각과 감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얘기해보기로 했다.

이제 이 작은 마을에서 이들과 함께 숨을 쉬으며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순간순간 그냥 잘 살고 싶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 회정의 이야기



11월이다. 필리핀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거의 3달째 되어가고 있다. 이번 달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다. 재미있는 날도 많았고, 힘든 날도 많았다. 그리고 사람에게 오는 스트레스도 정말로 많은 달이었다. ‘사람’에게 오는 스트레스가 없어지려면, 심리학자 아들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 우주 한 공간에 나 혼자만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엔, 나는 사람과 살아가야하는 존재이고, 그 안에서 살아감을 느끼기에 잘 버텨야하는데 이것이 조금 많이 나에게에는 버겁게 느껴진다. 그래서 조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된 달이다.

그래도, 우리의 활동지인 ‘LUPI’에서의 삶은 잘 살아가고 있다. 필리핀 YMCA 사무총장님이 처음 마닐라 OT에서 라온아띠로서 성공(?)하는 것은 “마을 사람들과 동화되고, 마을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잘 동화되고 있고, 마을 주민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 같다. 특히, 홈스테이 아버지인 ‘Kuya Ronald’ 덕분에 감사하게도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다.

11월 첫날, 필리핀 종교적 행사 기간에 나와 남정이 형은 Kuya Ronald와 함께 우리나라 공동묘지와 같은 곳에 가서 Kuya Ronald의 가족 분들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에게 인사 드리고, 기도 드리고 왔다. 그리고 우리 옆집에 사시던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석하기도 하고, 이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 생신 잔치에도 참여하기도 하면서, 마을의 기쁜 일과 슬픈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했다. 타지 사람인 나를 현지 사람으로 인정해주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Kuya Ronald와 함께 돌아다니거나 부엌 공사 끝나고 술을 한 잔 하실 때는, “Jun Jun, 2 shot.”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나를 기억해주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좋다.

## 회장의 이야기



다만, 우리가 진행 중에 있는 데이케어센터 부엌 공사가 생각대로 되지 않고, 도전 받는 일이 생기면, 많이 힘들었다. 쉬고 싶어서, YMCA 하우스로 돌아가면, 그곳은 그곳에서 생기는 문제들로 제대로 실 수가 없었다.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에. 그래서 요즘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로 좁혀나가고 있다. 이것이 나에게 편안함을 제공해주었으면 좋겠다.

LUPI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국내훈련 때, 보고 들었던 것들을 많이 되새기게 된다. 특히, 시흥 YMCA에서 활동하다가 마을 활동가를 뵈고, 우리나라가 마을 공동체 운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필리핀에서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은 아주 마을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의 본보기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서로가 Win-Win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중간 격려차 한국 Y에서 필리핀으로 오셨는데, 이를 준비하느라 많은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지만,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좋은 시간들이었다. 그리고 잠시 실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마음은 편안해져서 좋은 시간이었다.

# 성아의 이야기



#1

루피에서 홈스테이를 한지 어느덧 2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1970년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나도 루피 사람들처럼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하며 이곳 생활을 사랑해 가고 있다.

초반에는 집과 데이케어센터, 회의가 전부였던 나의 일상에 잔잔한 변화들이 생겨났다. 루피 청년들의 치열한 농구 경기를 팝콘을 먹으며 보기도 하고, ZONE 별로 대결하는 줌바 대회에 마치 참가자인양 열심히 춤을 따라 추기도 하고, 같이 빨대로 꽃을 만들며 정원 콘테스트 준비도 하는 소소하지만 행복한 나날들로... 미소가 예쁜 소년을 쫓아다니다 모두가 나를 보면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놀리고, 별과 달 아래에서 하는 샤워의 낭만을 즐기게 되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필리핀 광고 cm송을 따라 부를 수 있게 되니 여전히 가끔은 코리아노라고 불리지만 문성아가 아닌 Ate Sue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이 좋다.

행복한 순간들이 참 많았지만 유독 우리 집에만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아 힘들었다. 음.. 힘들었다기 보다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너무 많아 머리가 아팠다. 그리고 어떤 것을 배우고 감당하라고 이곳에 신이 나를 보내셨을까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하고 있다. 다 퍼주고 싶다가도 망설이게 되는, 사랑을 온전히 쏟아 줄 수 없는 상황과 나의 모습에 힘들어 지는 순간이 참 많았던 것 같다. 그들이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지 중요하지 않다. 내가 느끼는 그들과 내가 그들을 나의 또 다른 가족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나에겐 가장 중요하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바라지 않는 마음이 가능할 줄은 몰랐다.

한국에 가면 모든 이 순간들을 그리워 할 것 같다. 큰 이별을 감당해야 하는 날이 다가 오고 있다는 것이 무섭다. 보노 언니가 너는 이곳에 다시 올 것 같냐는 질문을 했다. 고민하지 않고 응 이라고 대답했다. 꼭 다시 와야지. 꼭!. 그때 같이 올 준준, 보노, 지미, 페퍼 구함! :)



#2

이번 11월에는 그리웠던 사람들이 나가에 왔다.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 팀원 모두가 보고서를 계획하고 만드는데 일주일간 온 힘을 쏟았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온 지난 3개월이 닳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꾸야 존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난 사람들 모두를 담을 수 있을까?...

그리고 보고회 이후 우리는 짬짬이 개인 면담 시간을 가졌다. 회정이는 무려 19가지의 질문을 했다는데 나는 폭풍우 치듯 몰려온 나에게 대한 고민이 잔잔해지자 고민이 없어졌고, 고민이 없는 것이 고민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애써 간사님들과 이야기 할 시간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혹시 서운해 하시진 않을까 죄송한 마음이 든다. 아! 고민이 없는 것이 고민이라는 얘기를 한 후 규간이 성아, 너 남의 이야기 잘 안 듣지? 라고 말씀하셨다... 나를 간파 당했다는 생각에... 너무 신기했다. 점점 큰 책임을 져야 하는 날이 다가오는 만큼 조금은 누군가에게 의지해보고 진심으로 그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하지만 규간... 남기고 가신 귀한손님이라는 단어...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 정말 답답해 미칠 것 같아요... 간사님.... 제발..)

문득 라온아띠 면접 당시가 떠올랐다. 언제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푸냐는 질문이었던 것 같다. 스트레스 안 받는 것 같다고 잘 떠오르지 않는다고 무의식에 대답했는데 진짜 난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굳이 굳이 없는 것 같다. 감당가능하다... 가끔 나도 놀라서 나에게 괜찮은지 물어보곤 한다. 근데 정말 괜찮다. 나도 나를 모르겠다.

## 성아의 이야기



#3

엄마와의 통화는 필리핀 이곳에서도 늘 한결 같다. 밥 먹었니? 영양제 먹었니? 살쪘다. 머리가 크면서 점차 깨달았다. 엄마와 나는 서로 힘든 얘기를 절대 하지 않는다. 슬펐다거나 행복했다거나 감정 이야기도 잘 나누지 않는다. 우리는 대화하는 모녀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알맹이가 없었던 것 같다... 친구와의 관계, 교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만 엄마와의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기 위한 노력은 하지 못했다. 요즘 하는 고민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엄마와 좋은 관계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 수 있는가? 이다. 엄마가 이 에세이를 보겠지? 최진희 여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 히히

## 남정이의 이야기



벌써 11월이 지나가다니. 지나간 시간들은 정말 빠르다는 걸 새삼 또 깨닫는다. 매트에 혼자 누워 이런저런 생각들을 그리다가 우리가 이 곳에서 보냈던 시간들보다 앞으로 보낼 시간들이 적어졌다는 사실을 문득 인지할 때면 깜짝 놀라곤 한다.

라온아띠 필리핀에서의 활동이 중반을 넘어서는 지금, 나 개인적으로는 라온아띠라는 프로그램에 조금씩 의미를 부여하고 찾아가는 것 같다. 내가 지금까지 찾아온 라온아띠의 의미는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이다. 처음에는 우리 팀 5명으로 시작하여, 필리핀 YMCA 가족들, 이웃들, 루피의 가족들, 데이케어센터 선생님과 학부모님과 아이들, 그리고 이제는 루피라는 마을의 사람들까지, 함께 맺은 인연들이 많아지고 관계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 함께 잘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낯설고 신기했다. 이전의 나는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고자 노력은 했지만 다 함께 잘 살아가고자 고민해본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 한국에서 했던 봉사활동들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열심히 했고 뿌듯하기도 했지만 내가 주체가 되어 무언가를 주려고 했었지, 지금처럼 모두가 주체가 되어 함께 무언가를 해보려는 의식은 부족했던 것 같아서 반성하게 된다.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맺으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함께 잘 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나와 인연의 끈이 이어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해볼 수 있다면, 그리고 함께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좋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 남정이의 이야기



이번 에세이는 쓰다 보니 스스로 많은 반성을 하게 된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었고 고민해볼 수 있었지만 과연 나는 내가 받은 만큼, 배운 만큼, 그리고 생각하는 만큼 얼마나 행동할 수 있었나. 정말 다행인 것은, 그리고 내가 이런 고민들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것은 나 혼자서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함께 생각들을 공유하고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진심으로 행복하고 감사하다. 또한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 라온아띠에게 감사하다. 다음 달도 파이팅.

## 여정의 이야기



에세이를 어디까지 솔직하게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 에세이가 뭔지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내 이야기를 쓰기로 결심했다.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닐까. 글을 다 쓰고 나면 후회하진 않을까. 걱정되지만 누군가로부터 받은 ‘용기’ 라는 선물을 지금 풀어보기로 한다.

난 ‘관계’에 그다지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다. 아주 가까운 사람들만 내 곁에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곁에 남을 사람은 남고 남지 않을 사람은 굳이 붙잡지 않는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많은 혼란이 있었고, 관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지만 결국 스스로를 속이지 못했다. 그런 내가 라온아띠를 통해서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관계 맺는 일이란 재미있지만 다소 많은 에너지를 요하는 일이라고만 여겼지, 그 맺은 관계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관심 밖의 일이었다. 이번 달은 나에게 그런 달이었다. 관계에 대한 생각이 변하면서 이미 알고 있던 존재들도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달.

버들이 소식을 들었을 때 지난 일주일 동안 행복하게 지낸 나를 원망하고, 타이밍 참 잘 잡으셨다며 하늘을 원망했다. 라온아띠를 통해 얼마나 큰 걸 주시려는 건가, 내 소중한 존재들을 뒤로 하고 올 만큼 이것이 나에게 의미 있는 걸까. 나보다 더 나의 눈치를 보는 팀원들에게 미안해 일부러 집에 늦게 들어가려고도 했다.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했고, 또 그러려 했다. 하지만 사람을 치유하는 건 결국 사람이라고 했던가. 팀원들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었다. 어느 정도 슬픔이 아물었을 때 각자의 자리에서 날 열심히 걱정하고 있던 이들이 있음을 깨닫는다. 힘내!라는 문구가 적힌 신상 뽀빠로를 건네던, 관찮냐고 장난스럽지만 용기 내 묻던, 루피에 가면 아이들은 다 자기에게 맡기라던, 가만히 자는 척 누워있는 내 머리맡에 휴지를 놓아주던 이들.

## 여정의 이야기



어느 정도 마음이 잔잔해질 때쯤 루피에서 파도를 만들었다. 나에게 루피는 '소확행'이다. 루피에 있으면 마음이 참 편안하고, 아이들을 보면 세상의 모든 고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마음이 사르르 녹아 내렸다. 루피 사람들의 웃음이 좋고, 하나 둘 인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좋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내 이름을 듣는 것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루피에서의 생활이 하나의 활동으로 다가왔다. 활동으로 느껴지니 관계에 있어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 아무렇지도 않았다. 헤어질 때 눈물도 별로 나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내가 당장 다음 주부터 다른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눈물이 우르르콧콧 났다. 울면서도 눈물이 왜 자꾸 나는 건지 좀 놀랐다. 관계에 무심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엄청난 관계 속에 살고 있구나, 그 안에서 나는 많은 마음을 쏟고 있구나. 언젠가 스스로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라는 누군가의 말이 떠오른다. 그러나 이번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다. 헤어짐이 아직은 그렇게 무섭지 않은 이유. 또 만날 것이라는 확신일까 아니면 나의 센 척인 걸까. 루피는 여전히 나와 밀당 중이다.

버거운 11월이었던 만큼 중간격려가 기다려졌다. 모든 일은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데 도무지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할 지 갈피를 못 잡고 있었다. 막상 반가운 두 얼굴을 마주하자마자 느껴지는 이 공기...뭐지... 아까운 시간들이 지나고 어느덧 자연스럽게 간사님들과 지난 3개월의 마음들을 나눌 수 있었다. 만나는 시간이 쌓여 갈수록, 공유하는 마음들이 늘어 날수록 이미 알고 지내던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존재로 다가왔다. 이런 게 대화의 매력인가.

드디어 라온아띠가 내게 주는 의미, 내가 라온아띠를 통해 찾아야 하는 의미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엄청난 시작이다.

04

락아네 사진전



# 회정의의 사진 PICK



A te Susan's birthday party!



형석간사님과  
수간님이  
담려 주신,  
샹그리아를 마시며!



꾸야 로 날드가  
직접 클라주신 사진  
On the New Kusina  
(kitchen)  
Roof

바람가이 오피셜  
'Kuya Edd'  
동갑내기  
'Resty' 와 함께!



# 여정의 사진 PICK



우리 제이드  
잇몸이  
이리도 넓었구나



뺏인 또는 머리 위 하투



나 찍는 줄 알았단 말이야 아베 마리아



아이스크림 끝부분은 안 먹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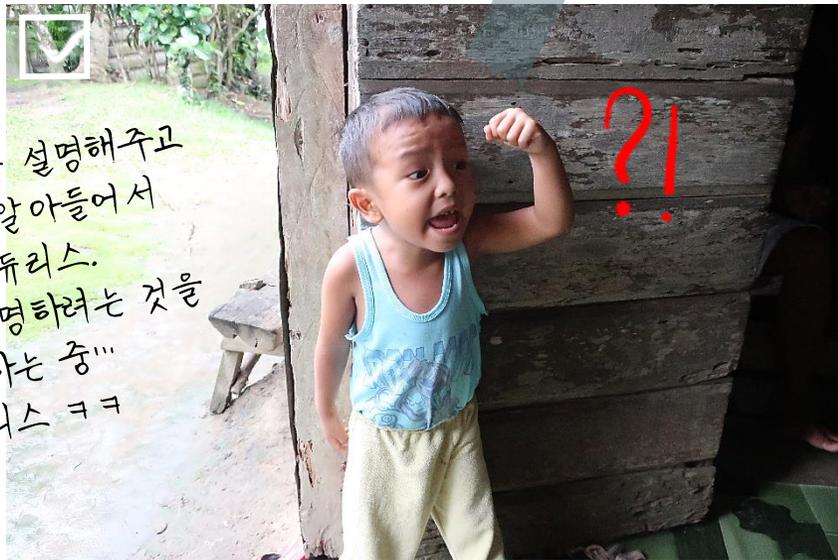
# 남정이의 사진 PICK



다음 중  
생일의  
주인공은?!



홈스테이 한 달 만에  
트레이샤가 내게 다가와(?)  
함께 사진 찍기에 성공함.  
그러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을 땐  
여전히 날 모르는 척 한다!!



내게 문밖의 무언가를 설명해주고  
싶었지만 내가 못 알아들어서  
너무 답답한 듀리스.  
할머니께 자신이 설명하려는 것을  
열심히 전달하는 중!!  
미안해~ 듀리스 ㅋㅋ



점심 먹는 중에 책상 밑에서  
장난치는 제이드.  
정말 수줍은 아이인 줄 알았지만  
친해지고 나니 누구보다  
장난꾸러기!

# 주은이의 사진 PICK



고진감래  
(苦盡甘來)



보노의 24번째 생일 파티^^  
maraming salamat po 

제이드 바바(내려와)~  
린데!(싫어!) 



루피에서 인생샷  
With  
애정 하는 자매님들 



# 성아의 사진 PICK



제아는. 보고 있니?  
한 달의 짧은  
LOVE를 꿈꾸다"



지붕 위에 올라가,  
하늘을 벗삼아 여유부리기  
지붕에서 본 하늘은  
나에게로 쏟아질 것만 같았다.



키요미 와키랑 라파엘  
들 사이는 네자리.  
들 다 불살 핵즐커렘

정겨운 우리 ZONE 3  
모두가 마을의  
뷰티콘테스트를 위해  
열심히 준비 중

